KIEP 기초자료
20-04

2020년 5월 11일

미·일 무역협정(USJTA) 발효와 한·일 대미수출 경쟁력 비교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044-414-1135)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044-414-1052)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일 무역협정(USJTA) 발효와 한·일 대미수출 경쟁력 비교

요약

▶ 미·일 상품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미국시장 내 한·일 상품간에 경쟁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경쟁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함.

- 상품협정에 의하면 일본은 농축산물(01~15류)을 중심으로 595개 품목(HS 9단위 기준)에 대해, 미국은 기계 및 장비(84~92류)를 중심으로 241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상호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함.

▶ 미국의 양허품목 241개를 대상으로 미국, 한국, 일본의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하나, 전 품목에서 양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 모두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순으로 수입규모가 크나, 전 품목 수입에서 양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5.2%, 한국 3.1%로 높지 않음.
- 일본 총수출(7,140억 달러)에서 미국의 양허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출(87억 3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미만이며, 한국 총수출(5,737억 달러)에서 같은 품목에 대한 대미국 수출(25억 4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미만임.

▶ 미국의 양허품목에 대한 미국 내 수입점유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품목들의 대일본 수입관세율은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인하될 예정으로 향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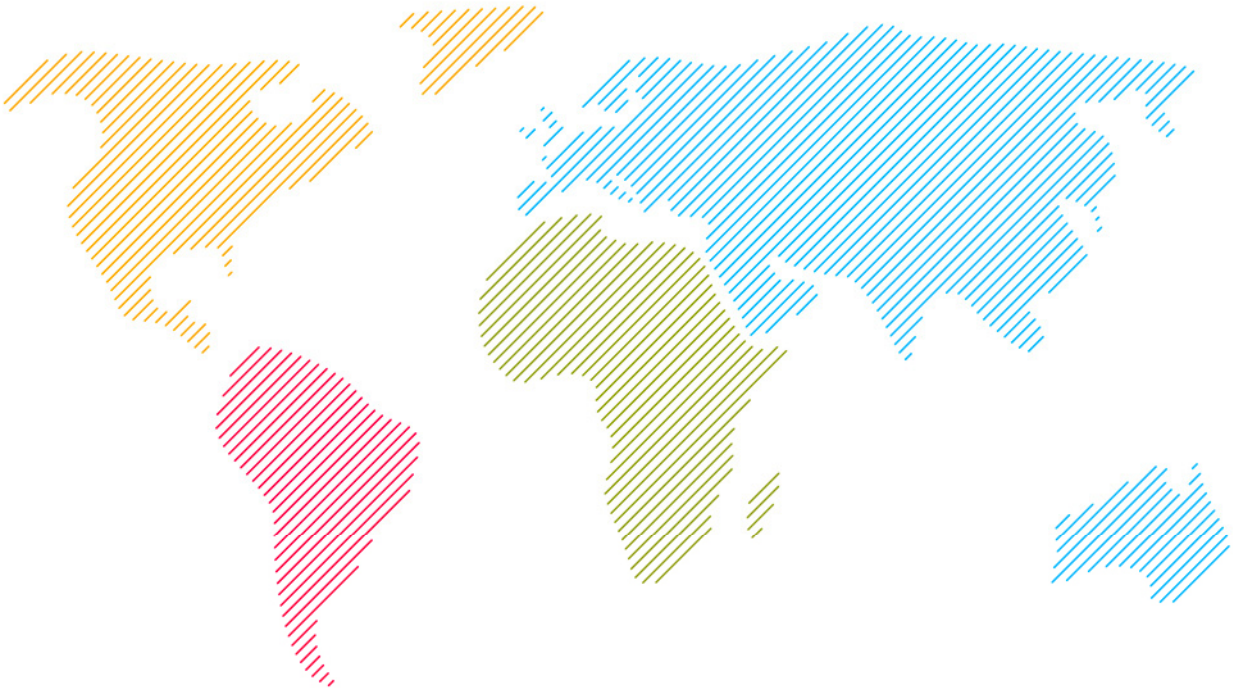
- 241개 양허품목 전체에 대한 수입점유율은 일본 9.5%, 한국 3.0%로 일본이 높고, 각 품목별 점유율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품목이 171개로 다수를 차지함.
- 미국의 대일본 관세율은 상품협정 발효 1년 차(2020년)에 57개 품목이 즉시철폐되고, 127개 품목이 3.0%p 감축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평균 2.7%p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집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과 점유율이 높은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수는 8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계류(8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 심화가 예상됨.

-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83개 중 기계류에 해당하는 품목 수는 18개이며,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서도 다수의 품목이 기계류에 해당함.

▶ 현재 발효된 미·일 상품협정은 대상품목 수가 적어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미·일 간 추가협상에 따라 경쟁심화 품목 수가 증가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미·일 상품협정 미대상 품목 중 고수입 양국경쟁에 해당하는 품목 659개가 미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8%로 높음.



차 례

1. 서론

2. 미국 양허품목에 대한 교역 현황
   가. 미국의 수입 현황
   나.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수출 현황

3. 미국시장 내 한·일 경쟁력 비교
   가. 품목별 수입점유율
   나. 관세율 변화
   다. 한·일 상품경쟁력 변화

4. 결론

부록: 미·일 상품협정 미대상 품목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1. 서론

■ 미·일 무역협정(USJTA: United States-Japan Trade Agreement)은 2018년 9월 26일 양국 정상이 협상 추진을 합의한 이후 약 1년여 만인 2019년 10월 7일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 미·일 무역협정은 상품협정(Trade Agreement)과 디지털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으로 구분되어 체결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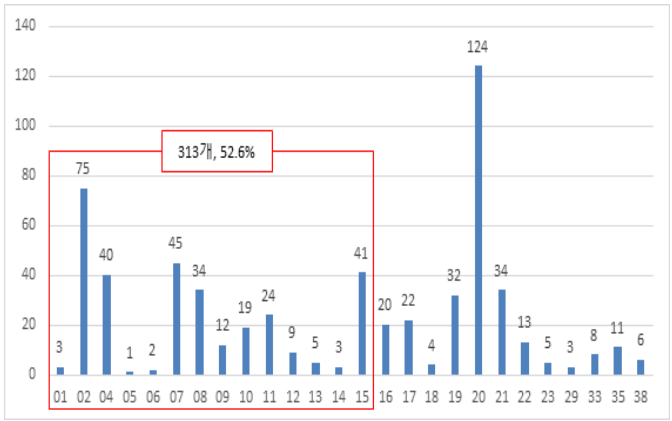
■ 상품협정문에 의하면 일본은 595개 품목(HS 9단위 기준)에 대해, 미국은 241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상호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함.

- 일본은 농축산물(01~15류)을 중심으로, 미국은 기계 및 장비(84~92류)를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함.
  - ○ 일본은 육류(02류)[1] 75개 품목을 포함하여 313개 농축산물 품목(52.6%)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며, 식물조제품(20류)[2]에서 관세인하 품목이 124개로 가장 많음.
  - ○ 미국은 일본과 달리 기계류(84류)[3] 49개, 전기기기(85류)[4] 42개 등 기계 및 장비(52.3%)에서 126개로 관세인하 품목이 다수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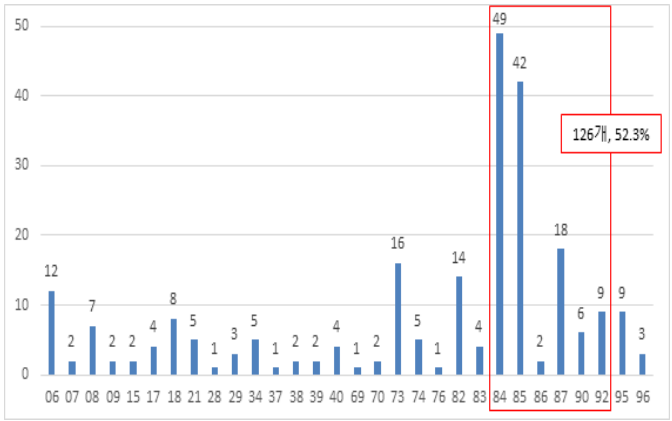
그림 1. HS 2단위별 미·일 상품협정의 대상 품목 비교

(단위: 개)

〈일본의 양허품목〉



〈미국의 양허품목〉



주: 가로축은 HS 2단위를 의미함.
자료: USJTA Text(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us-japan-trade-agreement-text, 검색일: 2020. 3.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육과 식용 설육.
2)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3)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4)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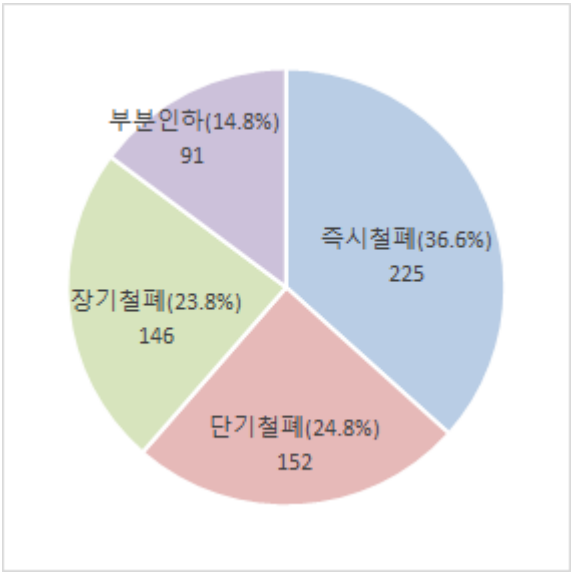
■ 양허유형을 살펴보면 일본은 즉시철폐, 미국은 단기철폐를 주로 이용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철폐, 미국은 부분인하를 이용하여 시장을 보호함.

- 일본은 양허품목의 36.6%를 즉시철폐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 비중이 23.8%로 높고, 장기철폐 및 부분인하 품목에 저율관세할당(TRQ) 혹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SG) 등을 도입하여 민감품목인 농축산물을 보호함.
  - ○ 장기철폐의 40개와 부분인하의 38개 품목에는 SG가 추가 도입되었으며, 부분인하의 36개 품목에는 TRQ를 도입함.
- 미국은 일본보다 즉시철폐 품목 비중(23.7%)이 낮으나 5년 이내 단기철폐 품목 비중(45.6%)이 높고, 협정발효 이후에도 현행관세율의 일정부분만 인하하여 민감품목을 보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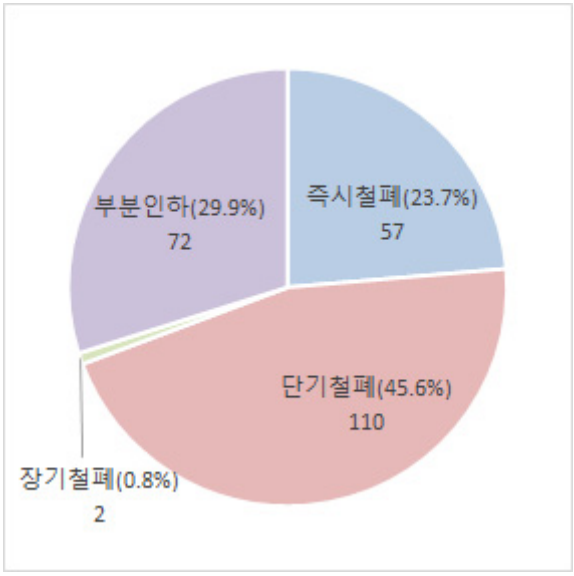
그림 2. 미·일 상품협정의 양허유형 비교

(단위: 개)

〈일본의 양허유형〉



〈미국의 양허유형〉



주: 1) 단기철폐는 협정발효 후 5년 내 관세를 0%로 철폐하기로 한 품목, 장기철폐는 5년을 초과하여 관세를 0%로 철폐하기로 한 품목, 부분인하는 협정발효 후에도 무관세가 되지 않는 품목의 양허유형을 의미함.
2) 일본의 경우 하나의 품목에 다수의 양허유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양허유형의 합계가 양허품목 수인 595개 보다 많음.
자료: USJTA Text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us-japan-trade-agreement-text, 검색일: 2020. 3.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미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인 기계 및 장비(84~92류)를 중심으로, 즉시 및 단기 철폐를 주로 이용하여 일본에 시장을 개방한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 내 한국과 일본 상품 간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향후 미·일 상품협정이 확대될 경우 양국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을 살펴보고자 함.

- 미국시장 내 한국과 일본 상품의 수입규모, 수입점유율, 대한국 및 대일본 관세율 차이 등을 비교하여 미·일 상품협정에 따른 경쟁심화 품목을 도출함.

2. 미국 양허품목에 대한 교역 현황

가. 미국의 수입 현황

■ 미·일 상품협정의 대일본 관세인하 품목(미국 HS 8단위 241개)이 2017~19년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이며, 이 품목들이 미국의 대일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임.

- 241개 품목 중 미국의 수입 실적이 존재하는 품목은 234개이며, 이 가운데 대일본 수입 실적이 존재하는 품목은 208개, 대한국 수입 실적이 존재하는 품목은 191개임.
- 241개 품목에 대한 미국시장 내 대일본 수입점유율은 9.5%(73억 3천만 달러)로 대한국 수입점유율 3.0%(23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며, 수입액 규모 역시 3배 이상의 격차가 있음.

○ 전 품목 수입에서 양국의 점유율(일본 5.8%, 한국 3.1%)을 감안할 때, 241개 품목 수입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편중됨.

표 1. 미국의 대일 관세인하 품목 수와 수입액

(단위: 개, 백만 달러, %)

상대국	품목 수			수입액(2017~19년 평균)				
	전체	대일 관세인하 품목		전체(A)	수입점유율 (%)	대일 관세인하 품목(B)	수입점유율 (%)	비중(=B/A) (%)
		수입 O	수입 X					
대세계	10,831	234	7	2,427,150	-	77,503	-	3.2
대일본	7,614	208	33	140,317	5.8	7,328	9.5	5.2
대한국	6,503	191	50	75,090	3.1	2,363	3.0	3.1

자료: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41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일본 수입 주요 산업은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으로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각 산업의 수입점유율 역시 큰 편이며,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대한국 수입에 대해서도 동일함.[5)]

- 대일본 수입점유율이 가장 큰 산업은 비철금속(54.6%)이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반대로 전자의 경우 수입점유율은 0.2%로 미미하나 대세계 수입액은 130억 3천만 달러에 달함.
- 대한국 수입점유율은 비철금속(5.7%), 철강(4.6%) 등에서 높은 편이나, 대일본 수입점유율과 비교하면 전자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낮음.

5) 산업분류는 HS 6단위 기반의 GTAP 품목분류를 준용하여 구분한 17개 산업을 이용함.
HS 6단위와 GTAP 품목분류 코드 간 연계는 WITS(http://wits.worldbank.org/, 검색일: 2020. 3. 31)의 Product Concordances 참고.

	산업분류	GTAP 품목분류 코드		산업분류	GTAP 품목분류 코드		산업분류	GTAP 품목분류 코드
1	쌀	1, 23	7	채취업	13, 15, 16, 17, 18	13	자동차	38
2	곡물, 과일 및 채소	3, 4, 5, 8	8	섬유·직물	27	14	기타 수송기기	39
3	육류 및 낙농	11, 19, 20, 22	9	의복	28	15	전자	40
4	가공식품	21, 25, 26	10	화학·고무·플라스틱	32, 33	16	기계	41
5	기타 농업	2, 6, 7, 9, 10, 12, 24	11	철강	35, 37	17	기타 제조업	29, 30, 31, 34, 42
6	수산업	14	12	비철금속	36	-	미분류	

주: 음영은 미국의 대일 관세인하 241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임.

표 2. 산업별 미국의 대일 관세인하 품목 수와 수입액

(단위: 개, 백만 달러, %)

산업	품목 수			수입액(2017~19년 평균)				
	대세계	대일본	대한국	대세계	대일본	수입점유율(%)	대한국	수입점유율(%)
곡물, 과일 및 채소	22	11	7	1,557	11	0.7	3	0.2
가공식품	14	8	8	2,636	32	1.2	7	0.3
화학·고무·플라스틱	**18**	**18**	**17**	**5,958**	**930**	**15.6**	**161**	**2.7**
철강	**35**	**35**	**34**	**12,343**	**1,049**	**8.5**	**566**	**4.6**
비철금속	5	5	5	251	137	54.6	14	5.7
기타 수송기기	20	20	10	2,094	114	5.5	1	0.0
전자	13	7	10	13,029	28	0.2	53	0.4
기계	**82**	**80**	**78**	**36,123**	**4,650**	**12.9**	**1,472**	**4.1**
기타 제조업	25	24	22	3,511	377	10.7	86	2.5
계	234	208	191	77,503	7,328	9.5	2,363	3.0

주: 품목 수는 미국의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한 수치이며, 마찬가지로 '육류 및 낙농' 산업은 이에 속하는 2개 품목의 미국 수입 실적이 없어 표 항목에서 제외함.
자료: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수출 현황[6)]

■ 미국의 대일본 관세인하 품목(HS 6단위 기준 167개)이 2017~19년 일본의 총수출(대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 대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며, 한국의 총수출(대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 대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임.

- **[전체 품목]** 일본 총수출에서 대미국 수출 비중은 19.4%, 한국 총수출에서 대미국 수출 비중은 12.5%로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대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음.
- **[167개 품목]** 일본의 대미국 수출의존도는 18.5%,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존도는 11.6%로 전체 품목 수출에서의 대미국 수출의존도와 비슷한 수준임.
- 한편, 일본의 총수출(7,140억 달러)에서 대미국 167개 품목 수출(87억 3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한국의 총수출(5,737억 달러)에서 대미국 167개 품목 수출(25억 4천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여 미국의 대일본 관세인하가 양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3. 미국의 대일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한국·일본의 대미 수출

(단위: 개, 백만 달러, %)

수출국	상대국	품목 수			수출액(2017~19년 평균)				
		전체	대일 관세인하 품목		전체(A)	수출의존도 (%)	대일 관세인하 품목(B)	수출의존도 (%)	비중(=B/A)
			수입 O	수입 X					
일본	대세계	4,896	167	-	714,005	-	47,216	-	6.6
	대미국	3,876	163	4	138,690	19.4	8,725	18.5	6.3
한국	대세계	5,034	167	-	573,732	-	21,845	-	3.8
	대미국	4,080	162	5	71,565	12.5	2,543	11.6	3.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 수출), Trade Map(일본 수출, https://www.trademap.org/, 검색일: 2020. 3. 3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미국 대일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 현황은 241개 품목(미국 HS 8단위)에 대응하는 HS 6단위 1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살펴봄. 해당 HS 6단위 하부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의 세부 품목 중에는 실제로 관세인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167개 품목에 대한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계산 상 가능한 최대 수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 즉, [표 1]의 미국 수입액과 [표 3]의 한국 및 일본의 수출액은 차이가 있음.

■ 167개 품목에 대한 산업별 일본의 대미국 수출의존도는 주요 3개 산업(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모두 전체 산업 수준(18.5%)과 비슷한 수치이며, 한국의 3개 산업 수출의존도 역시 전체 산업 수준(11.6%)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일본의 대미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자(38.5%)이나 대세계 수출이 1억 3천만 달러(대미국 5천만 달러)로 많지 않고, 한국의 경우 전자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6억 4천만 달러에 달하나 대미국 수출(5천만 달러)은 많지 않음.
- 3개 산업 외에도 기타 제조업에 속한 품목들에 대해 일본은 4억 5천만 달러, 한국은 1억 1천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미국 수출의존도는 일본 20.7%, 한국 20.8%로 비교적 높음.

표 4. 산업별 한국·일본의 대일 관세인하 품목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전체 품목 수출액		대일 관세인하 품목 수출액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대미국 (A)	대미국 (B)	대세계 (C)	대미국 (D)	품목비중 [=D/A]	수출점유율 [=D/C]	대세계 (E)	대미국 (F)	품목비중 [=F/B]	수출점유율 [=F/E]
곡물, 과일 및 채소	50	75	202	37	73.4	18.3	35	4	4.8	10.4
육류 및 낙농	38	19	33	2	6.6	7.6	49	8	43.9	16.8
가공식품	851	785	677	139	16.3	20.5	385	56	7.1	14.5
화학·고무·플라스틱	**13,470**	**11,294**	**10,287**	**1,796**	**13.3**	**17.5**	**3,128**	**251**	**2.2**	**8.0**
철강	**4,136**	**4,592**	**4,876**	**998**	**24.1**	**20.5**	**4,462**	**577**	**12.6**	**12.9**
비철금속	1,064	899	1,211	56	5.2	4.6	619	15	1.7	2.4
기타 수송기기	6,846	1,358	1,283	162	2.4	12.6	104	18	1.3	16.9
전자	8,195	13,212	127	49	0.6	38.5	638	53	0.4	8.3
기계	**40,546**	**15,553**	**26,347**	**5,037**	**12.4**	**19.1**	**11,892**	**1,450**	**9.3**	**12.2**
기타 제조업	3,925	1,819	2,174	449	11.4	20.7	534	111	6.1	20.8
계	79,123	49,606	47,216	8,725	11.0	18.5	21,845	2,543	5.1	11.6

주: 1) 육류 및 낙농에 속하는 관세인하 품목(HS 8단위)의 경우 미국 수입 실적이 없으나, 여기서는 해당 품목 상부의 HS 6단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이 집계됨.
2) 전체 품목 수출의 계는 총 17개 산업 중 대일 관세인하 품목이 포함된 10개 산업에 대한 수출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표 3]의 대미국 전체 수출과는 차이가 있음.
3) 품목비중은 대미국 전체 품목 수출에서 대일 관세인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출점유율'은 대일 관세인하 품목 대세계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4) 수출액은 2017~19년 평균값을 이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 수출), Trade Map(일본 수출, https://www.trademap.org/, 검색일: 2020. 3. 3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미국시장 내 한·일 경쟁력 비교

가. 품목별 수입점유율

■ 대일 관세인하 241개 품목 각각에 대하여 2017~19년 미국시장 내 수입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의 점유율을 상회하는 품목 수는 41개, 일본이 한국의 점유율을 상회하는 품목 수는 171개임.[7)]

- 각 품목별 한국과 일본의 수입점유율 크기를 비교하면 대체로 일본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 품목에서 양국이 비슷한 수준의 수입점유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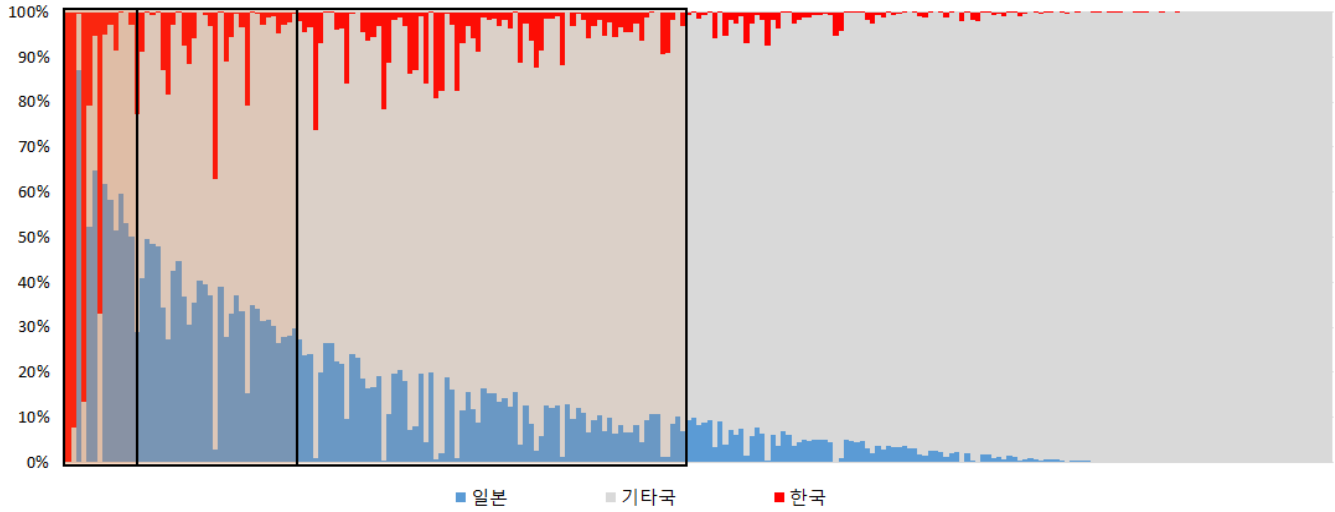
7) 241개 품목 중 미국의 대한국 수입과 대일본 수입 실적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29개 품목은 제외함.

- 특히 '한국+일본'의 수입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14개 품목, 30%를 초과(50% 이하)하는 30개 품목의 경우 미국 시장 내에서 양국 상품의 경합도가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에 민감할 수 있음.

○ 44개 품목('한국+일본' 점유율 30% 초과) 중 대한국 수입점유율이 3%를 초과하는 품목은 22개,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12개임.

-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입 실적이 없는 50개 품목과 수입점유율이 1% 미만(0% 초과)인 74개 품목의 경우 사실상 경합성이 없어 대일 관세인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임.

그림 3. 241개 품목별 한국과 일본의 수입점유율 비교



주: 1) 수입점유율은 미국의 2017~19년 평균 수입액을 이용함.
2) 가로축은 241개 품목에 대해 왼쪽부터 한국+일본 수입점유율이 높은 품목 순으로 정렬한 것이며, 세로축은 수입점유율을 표시한 것임.
3) 네모 박스 영역은 왼쪽부터 한국+일본 수입점유율이 △50% 초과 △50% 이하~30% 초과 △30% 이하~10% 초과 3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임.
자료: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별 각 품목들의 미국시장 내 수입점유율 분포를 살펴보면 주요 산업인 기계, 철강을 중심으로 일본은 수입점유율 3~30% 구간에 110개 품목이, 한국은 수입점유율 1~10% 구간에 92개 품목이 위치해 일본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개별 품목의 수입점유율이 30% 이상인 품목 수는 일본이 31개, 한국이 5개임.

○ 한국의 5개 품목 모두는 전자산업에 속하며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액 규모가 작은 반면에, 일본의 31개 품목은 기계,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에 속함.

표 5. 241개 품목의 산업별 미국 수입점유율 분포

(단위: 개)

산업	대일본 수입 품목 수						대한국 수입 품목 수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곡물, 과일 및 채소	19	1	1	1			19	2	1			
육류 및 낙농	2						2					
가공식품	16		1	1			17	1				

산업	대일본 수입 품목 수						대한국 수입 품목 수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화학·고무·플라스틱		2	5	6	2	3	8	4	4	2		
철강	4	8	10	10	3		6	12	11	6		
비철금속		1	2		1	1	2		2	1		
기타 수송기기	12	2	1	3	2		20					
전자	11	2	1				6	1	1	1	1	4
기계	8	6	31	23	10	4	30	22	23	7		
기타 제조업	4	2	7	7	4	1	14	5	3	3		
계	76	24	59	51	22	9	124	47	45	20	1	4

주: 1) 수입점유율은 미국의 2017~19년 평균 수입액을 이용함.
2) '1% 미만'에는 미국의 대일본 수입이 없는 33개 품목, 대한국 수입이 없는 50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관세율 변화

■ 미·일 상품협정 대상 241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일본 수입 평균 관세율은 기존(MFN) 4.8%에서 발효 1년 차(2020년) 2.2%, 발효 5년 차(2024년) 1.2%까지 하락하게 되어 대한국 관세율(0%)[8]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함.

- 241개 품목 중 협정 발효 1년 차에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57개에 불과하며, 이후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110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품목의 관세율 격차도 감소할 것임.
- 가중평균 관세율을 계산하면 기존(MFN) 3.7%에서 발효 1년 차(2020년) 1.0%, 발효 5년 차(2024년) 0.3%로 실질적인 격차는 더욱 작음.[9]
- 산업별로 미국의 대일본 평균 및 가중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기계, 철강 등 수입액이 큰 주요 산업의 경우 기존 4% 수준에서 협정 발효 직후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나, 수입액이 작은 농축산물 관련 산업의 경우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지속됨.

표 6. 대일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미국의 2020년 수입 관세율

(단위: %)

산업	평균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MFN	한·미 FTA	미·일 상품협정	대일본 MFN	대한국 한·미 FTA	대일본 미·일 상품협정
곡물, 과일 및 채소	6.3	0	4.6	6.3	0	5.0
육류 및 낙농	20.0	0	18.0	-	-	-
가공식품	5.6	0.1	4.4	4.1	0	3.5
화학·고무·플라스틱	**4.8**	**0.1**	**2.1**	**4.5**	**0.3**	**1.6**
철강	**4.5**	**0.03**	**1.6**	**4.0**	**0.03**	**1.0**

8)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한·미 FTA 양허에 따라 2020년 기준 6개 품목을 제외한 235개 품목에 대해 모두 관세가 철폐된 상태로, 평균관세율은 0.01%에 불과함. 또한 2021년(한·미 FTA 이행 10년 차)부로는 남은 6개 품목의 관세도 모두 철폐되어 평균관세율은 0%가 됨.
9) 가중평균 관세율은 2017~19년 수입액을 이용하여 계산함. 단 미국이 수입 시 MFN, 한·미 FTA, 미·일 상품협정의 세율을 100% 활용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실제 활용 여부와는 차이가 있음. 일례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 시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9년(누적) 기준 85.2%임(관세청 FTA 활용정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UseRate/ftaUseRateCnvnExpList.do?mi=3352).

산업	평균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MFN	한·미 FTA	미·일 상품협정	대일본 MFN	대한국 한·미 FTA	대일본 미·일 상품협정
비철금속	1.6	0	0	1.3	0	0
기타 수송기기	7.1	0	4.1	4.4	0	1.4
전자	4.5	0	1.5	4.8	0	1.8
기계	**3.6**	**0**	**0.9**	**3.4**	**0**	**0.8**
기타 제조업	4.7	0	1.8	4.3	0	1.3
계	4.8	0.01	2.2	3.7	0.03	1.0

주: 1) '육류 및 낙농'에 속하는 2개 품목의 경우 미국의 수입 실적이 없어 가중평균 관세율이 계산되지 않음.
2) 가중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2017~19년 평균 수입액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0~24년 양허유형별 미국의 대일본 관세변화를 살펴볼 때, 미국 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효 1~2년 차 관세철폐 품목에 대해 한국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예상되나, 부분적인 관세인하만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관세양허는 A부터 K까지 11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관세인하는 최장 10년[10]에 걸쳐 최종적으로 철폐(0%) 및 부분인하(50%)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 양허유형 A(57개)와 B(99개)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일본 수입의 91.2%, 대한국 수입의 82.7%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대일본 관세가 발효 1~2년 차에 모두 철폐되면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함.
- 양허유형 F(22개)와 G(27개)에 속하는 품목들은 기존(MFN) 평균관세율이 5.6%와 8.0%로 비교적 높고, 대일본 관세는 50% 부분인하(각각 2.8%, 4.0%)로 유지됨에 따라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표 7. 미국의 대일본 관세 양허 및 관세율 변화

(단위: 개, 백만 달러, %)

미국의 대일본 관세 양허								수입액 (품목 수)		대일본 평균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유형	해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품목 수	대일본	대한국	MFN	2020년	2024년
A	즉시 철폐	철폐(完)					57	2,544 (53)	833 (50)	2.3 (2.2)	0	0
B	2년 비선형 철폐	3%p 감축	철폐(完)				99	4,142 (92)	1,122 (91)	4.1 (4.1)	1.1 (1.1)	0
C	2년 균등 철폐	50% 감축	철폐(完)				7	1 (4)	3 (3)	4.1 (3.5)	2.1 (1.7)	0
D	5년 균등 철폐	20% 감축	40% 감축	60% 감축	80% 감축	철폐(完)	4	17 (2)	3 (2)	2.9 (3.0)	2.3 (2.4)	0
E	10년 균등 철폐	10% 감축	20% 감축	30% 감축	40% 감축	50% 감축	2	1 (2)	0 (2)	4.3 (4.0)	3.8 (3.6)	2.1 (2.0)
F	즉시 인하(50%)	50% 감축(完)					22	253 (20)	328 (16)	5.6 (5.6)	2.8 (2.8)	2.8 (2.8)
G	2년 비선형 인하(50%)	3%p 감축	50% 감축(完)				27	302 (27)	62 (20)	8.0 (6.8)	5.0 (3.8)	4.0 (3.4)

10) 양허유형 E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나, 여기에 속하는 2개 품목의 2017~19년 평균 미국의 대일본 수입액은 62만 달러로 미미하고, 대세계 수입액(1억 2천만 달러)과도 크게 차이가 남. 따라서 실질적인 미국의 관세인하는 5년 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미국의 대일본 관세 양허								수입액 (품목 수)		대일본 평균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유형	해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품목 수	대일본	대한국	MFN	2020년	2024년
H	3년 비선형 인하(50%)	3%p 감축	3%p 감축	50% 감축(完)			1	45 (1)	7 (1)	14.9 (14.9)	11.9 (11.9)	7.5 (7.5)
I	2년 균등 인하(50%)	25% 감축	50% 감축(完)				5	3 (2)	0 (1)	6.4 (6.4)	4.8 (4.8)	3.2 (3.2)
J	3년 균등 인하(50%)	16.7% 감축	33.3% 감축	50% 감축(完)			9	9 (4)	0 (4)	7.3 (6.4)	6.1 (5.3)	3.7 (3.2)
K	5년 균등 인하(50%)	10% 감축	20% 감축	30% 감축	40% 감축	50% 감축(完)	8	12 (1)	3 (1)	14.5 (5.6)	13.0 (5.0)	7.2 (2.8)
						합계	241	7,328 (208)	2,363 (191)	4.8 (3.7)	2.2 (1.0)	1.2 (0.3)

주: '수입액'은 2017~19년 평균으로, '(가중평균 관세율)'은 이를 이용해 계산하며, '(품목 수)'는 해당 기간에 수입이 존재하는 품목의 수를 의미함.
자료: USJTA Text(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us-japan-trade-agreement-text, 검색일: 2020. 3. 20),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한·일 상품경쟁력 변화

1) 분석 방법

■ 유사한 특성을 지닌 품목을 그룹화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중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미·일 상품협정에 따른 미국시장 내 한국과 일본 상품의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11)]

- 미·일 상품협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양허한 241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7~19년 평균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액, 수입점유율,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폭 등을 이용함.

○ 미국의 MFN 관세율이 0%인 품목과 대한국 수입이 없는 품목은 미·일 상품협정으로 향후 한·일 간 상품경쟁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액과 미국의 관세율은 USITC DataWeb에서 구함.[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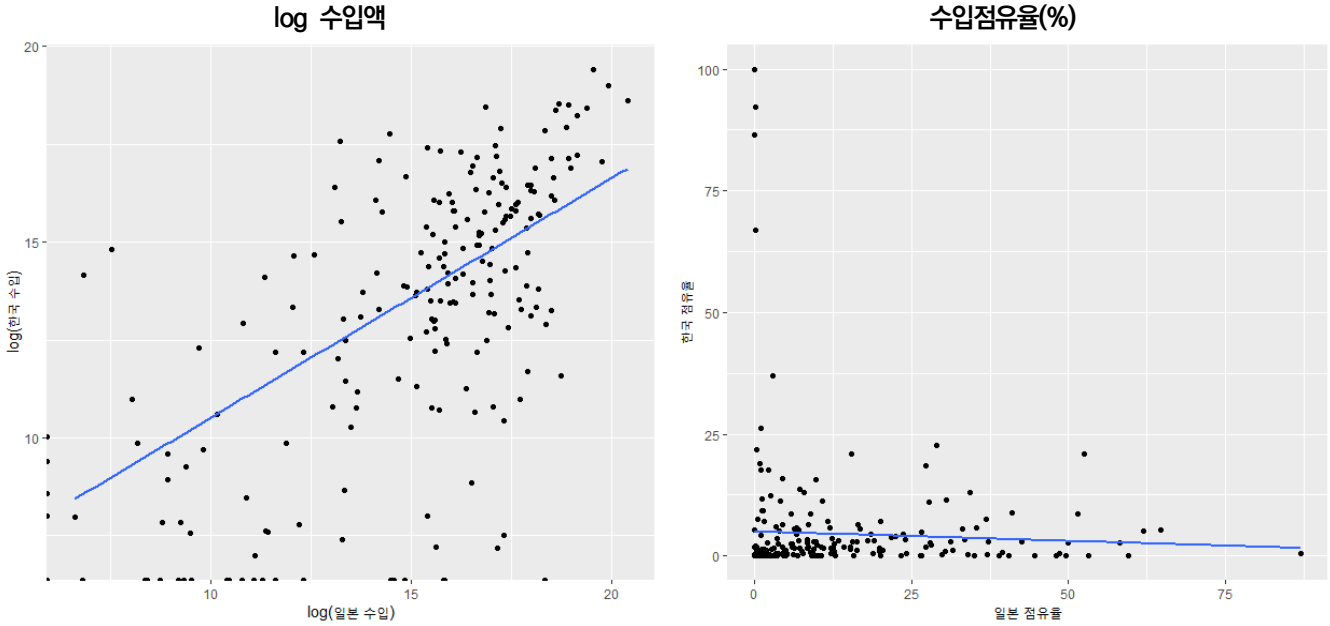
■ 241개 품목에 대한 미국시장 내 한국과 일본 상품의 수입액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나, 수입점유율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

- 한국과 일본 수입상품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수입금액에 따라 고수입과 저수입으로, 수입점유율에 따라 양국경쟁, 한국우위, 일본우위 등으로 미국시장 내 양국 상품의 경쟁관계를 규정함.

○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과 수입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고수입 양국경쟁으로, 대한국(대일본) 수입과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고수입 한국(일본) 우위 품목으로 구분

11) K-means 방법은 반복실행을 통하여 각 군집에 속하는 자료의 평균을 중심으로 군집 내 거리는 최소화하고 군집간 거리는 최대화하는 그룹을 k개로 분할하는 방법임(Bae and Roh 2005 참고).
12) USITC DataWeb(https://dataweb.usitc.gov/, 검색일: 2020. 3. 20).

그림 4. 241개 미국 양허품목에 대한 미국시장 내 한·일 상품의 수입 관계



주: 2017~19년 평균 수입액을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군집을 5개로 구분한 결과 각 그룹별 특징은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상품의 경쟁관계를 규정한 결과 고수입 양국경쟁(그룹 4)에 해당하는 83개 품목이 미·일 상품협정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한국 상품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13)]

- **그룹 1**은 양국 수입 및 수입점유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며, 한국과 일본의 수입점유율이 유사하여 저수입 양국경쟁으로 구분

○ **그룹 4**와 같이 양국경쟁에 해당하며 5년 후 대일본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3%p 이상 감소하는 그룹이나 양국 수입규모가 크지 않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룹 2**는 대한국 수입점유율과 관세율 격차가 큰 특징을 가지나 수입규모가 크지 않아 저수입 한국우위에 해당

- **그룹 3**은 5년 후 관세율 격차가 큰 특징을 가지며, 대일본 수입과 수입점유율이 높아 고수입 일본우위에 해당

○ 미·일 상품협정으로 5년 후 대일본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4.72%p 인하되는 그룹으로, 향후 대일본 수입 및 수입점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대한국 수입이 크지 않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룹 4**는 그룹 2와 달리 관세율 격차가 작은 특징을 가지며, 양국의 수입규모가 크고 수입점유율이 유사하여 고수입 양국경쟁으로 분류

○ 양국 모두 수입규모가 크고 미·일 상품협정으로 5년 후 대일본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2.74%p 인하되는 그룹으로, 향후 대한국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13) 그룹 내 제곱합(WSS: Within group Sum of Square)의 변화를 이용하는 Elbow Method와 다양한 기준을 이용한 최적 군집 수 선정 방법(NbClust) 모두에서 적정 군집 수가 5로 나타남.

- **그룹 5**는 대일본 수입 및 수입점유율이 모두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룹 3과 같이 고수입 일본우위에 해당

○ 대한국 수입이 가장 많은 그룹이기는 하나, 미국시장 내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이미 높은 품목으로 대일본 관세 인하의 대한국 수입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표 8.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각 그룹별 특징

(단위: 만 달러, %, %p, 개)

그룹	대일본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일본 수입점유율	한국 수입점유율	5년 후 관세율격차	해당 품목 수	특징	경쟁력 평가	
								현재	향후
1	33	4	1.85	2.00	3.43	28	양국 수입 및 점유율 낮음	저수입 양국경쟁	경쟁 심화
2	0	103	0.03	86.47	4.72	4	한국 수입점유율/관세율 격차 높음	저수입 한국우위	저수입 한국우위
3	3,234	979	12.44	3.67	4.59	42	관세율 격차 큼	고수입 일본우위	고수입 일본우위
4	3,139	1,641	7.20	4.32	2.74	83	관세율 격차 작음	고수입 양국경쟁	경쟁 심화
5	9,527	1,719	41.28	4.29	3.53	34	대일본 수입 및 점유율 높음	고수입 일본우위	고수입 일본우위

주: 1) 해당 값은 그룹별 평균 값이며, 5년 후 관세율 격차는 미국의 MFN 관세율과 5년 후 대일본 관세율 차이임.
2) 대한국 수입이 없는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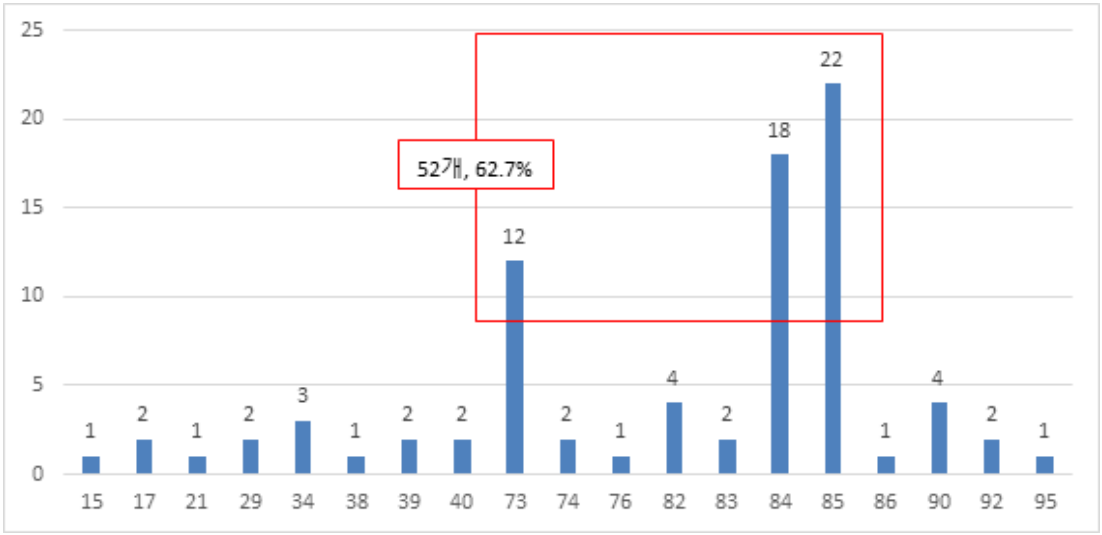
■ 특히 기계류(8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내 한·일 상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고수입 양국경쟁(그룹 4) 83개 품목 중 전기기기(85류, 22개), 기계류(84류, 18개), 철강제품(73류, 12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52개)로 높은 편이며,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품목이 기계류(84류)에 해당함.

○ 관세인하 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에서 대한국 수입이 대일본 수입으로 전환되어 한국의 대미국 수출감소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임.

그림 5.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에 대한 HS2 단위별 분포

(단위: 개)



주: 가로축은 HS 2단위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9.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중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상위 10대 수입품목

(단위: 만 달러, %p)

순위	대일본 상위 10대 품목					대한국 상위 10대 품목				
	HTS코드	품목명	대일본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관세율 격차	HTS코드	품목명	대일본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관세율 격차
1	84159080	에어컨 증발기 코일	31,281	27,135	1.40	84159080	에어컨 증발기 코일	31,281	27,135	1.40
2	84119990	가스터빈의 부분품	21,001	8,233	2.40	84807180	기타 고무/플라스틱을 위한 몰딩	13,075	11,304	3.10
3	84771090	고무류 가공 기계	20,809	2,991	3.10	73269086	기타 철강제의 기타 제품	16,677	10,917	2.90
4	73269086	기타 철강제의 기타 제품	16,677	10,917	2.90	84818030	철강으로 만든 기타 밸브	2,128	10,214	2.80
5	84807180	기타 고무/플라스틱을 위한 몰딩	13,075	11,304	3.10	84119990	가스터빈의 부분품	21,001	8,233	2.40
6	40169350	자동차용 이외 오링/오일	11,499	1,682	2.50	39263050	기타 가구용 부착물	3,111	5,978	2.65
7	85159020	용접기와 장치의 부분품	11,021	1,078	1.60	84141000	진공펌프	9,257	5,609	2.50
8	85389081	전기회로용 기타 부분품	10,879	2,755	3.50	85446060	1천V초과 기타 전기도체	196	5,209	3.20
9	84141000	진공펌프	9,257	5,609	2.50	85446040	1천V초과 구리염화물 전기도체	56	4,325	3.50
10	90041000	선그라스	7,948	98	2.00	84248990	기타 분사기	2,676	3,844	1.80

주: 1) 해당 값은 그룹별 평균 값이고, 5년 후 관세율 격차는 미국의 MFN 관세율과 5년 후 대일본 관세율 차이이며, 자세한 품목명은 HTS 품목명을 참고하기 바람.
2) 음영은 서로 중복되는 품목을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 다만 현재 미·일 상품협정은 대상품목 수가 적어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2020년부터 발효된 미·일 상품협정의 대상 품목 수는 241개로 많지 않고,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에서 분석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5.2%와 3.1%로 높지 않아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에 대한 한국 상품의 수입 감소 위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표 1 참고).

4. 결론

■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일 상품협정에 따른 미국의 대일본 관세인하는 기계, 철강,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을 중심으로 241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 품목들에 대한 미국시장 내 한·일 간 경쟁관계 변화가 예상됨.

- 다만 241개 양허품목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미만 수준으로, 이번 미국의 대일본 관세인하가 양국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 주요 산업인 자동차(HS 8703 등), 전자(HS 85 등) 관련 품목은 이번 협정에 거의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의 관세양허는 한국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편중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품목들의 미국 내 수입점유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3배 이상 크고, 각 품목별 수입점유율 역시 일본이 높은 품목이 171개(한국 41개)로 상대적 우위에 있음.
- 미·일 상품협정의 양허에 따라 미국의 대일본 평균관세율은 기존(MFN) 4.8%에서 2020년(1년 차) 2.2%, 2024년(5년 차) 1.2%로 하락하게 되며, 특히 대일본 수입의 90% 이상(대한국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품목들에 대해 1~2년 차에 관세가 조기 철폐됨에 따라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임.

■ 241개 미·일 상품협정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시장 내 한·일 상품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과 수입점유율이 높은 고수입 양국경쟁(그룹 4) 품목은 8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계류(8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

- 고수입 양국경쟁 83개 품목 중 기계류에 해당하는 품목 수는 18개로 두 번째로 많으며, 미국의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서도 다수의 품목이 기계류에 해당함.
- 다만 미·일 상품협정 대상 품목이 전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미·일 상품협정에 따른 대한국 수입감소 위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향후 미·일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어 양허품목 수가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고 양허수준이 한·미 FTA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경쟁심화 품목이 증가하여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14]

- 미대상 품목 중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과 점유율이 높은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은 659개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87류)[15]과 기계류(84류)를 중심으로 미국 내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예상됨.
  - ○ 전체 품목 수입에서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 내 자동차 및 부품(87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국 모두에서 20%를 초과[16]
  - ○ 659개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에는 기계류(84류, 115개), 플라스틱(39류, 87개),[17] 전기기기(85류, 72개)에 해당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었음.[18]

■ 따라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꾸준한 노력과 향후 미·일 추가 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경쟁심화 품목 중 수입규모가 큰 자동차 및 부품(87류)과 품목 수가 많은 기계류(84류)를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하락을 상쇄하는 수준 이상으로 품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자동차 및 부품(87류)은 지난 2018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미·일 추가 협상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 만큼 구체적인 추가 연구를 통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KIEP

14) 미·일 상품협정 미대상 품목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는 부록 참고.
1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16) [부록 표 2] 참고.
17) 플라스틱과 그 제품.
18) HS 2단위별 해당 품목 수는 [부록 그림 1] 참고.

부록: 미·일 상품협정 미대상 품목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부록 표 1. 미대상 품목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각 그룹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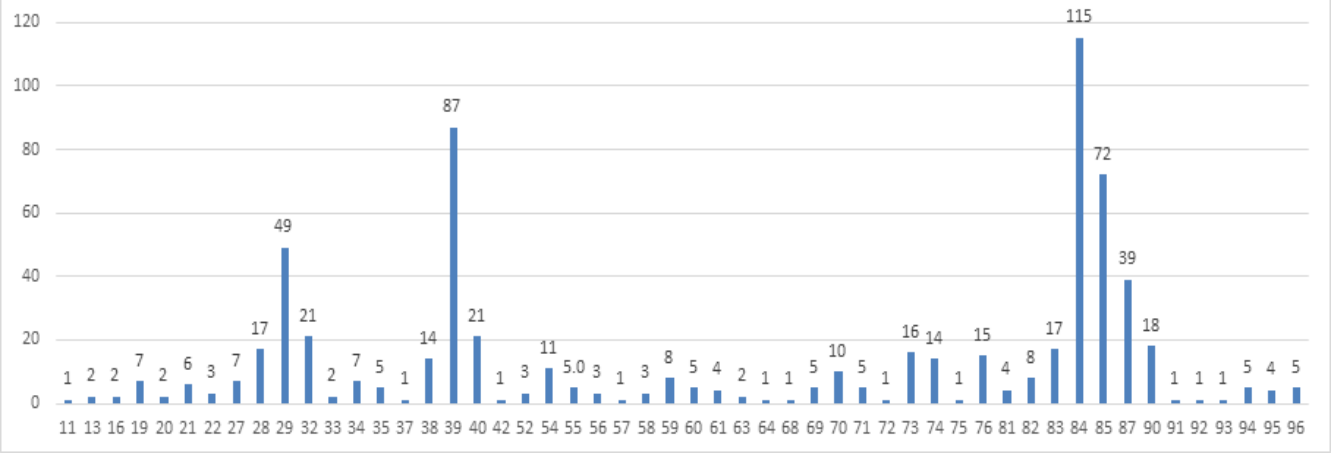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 %p, 개)

그룹	대일본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일본 수입 점유율	한국 수입 점유율	종가세 격차	종량세 격차	해당 품목 수	특징	경쟁력 평가	
									현재	향후
1	111	40	2.36	1.49	4.67	0.01	1,107	종가세 격차 작음	저수입 일본우위	저수입 일본우위
2	14	1	1.39	0.48	5.84	0.01	875	대한국 수입 및 점유율 낮음	저수입 일본우위	저수입 일본우위
3	505	3,884	2.72	48.36	6.04	0.02	119	대한국 수입 및 점유율 높음	고수입 한국우위	고수입 한국우위
4	82	1,209	0.66	2.50	13.55	0.55	69	관세율 격차 큼	고수입 한국우위	경쟁 심화
5	7,367	998	44.22	2.85	4.76	0.00	159	대일본 수입 및 점유율 높음	고수입 일본우위	고수입 일본우위
6	24	41	1.32	1.82	17.97	0.00	378	종가세 격차 큼	저수입 양국경쟁	경쟁 심화
7	8,988	4,653	7.33	5.95	4.18	0.00	659	양국 수입 및 점유율 높음	고수입 양국경쟁	경쟁 심화
8	0	39	0.00	2.73	5.15	0.02	299	대일본 점유율 낮음	저수입 한국우위	저수입 한국우위

주: 1) 해당 값은 그룹별 평균 값이며, 종가세 및 종량세 격차는 미국의 MFN 관세율과 한·미 FTA에 따른 대한국 관세율 차이임.
2) 미·일 상품협정 대상품목, 미국 MFN 관세율이 0%인 품목, 대한국 수입이 없는 품목, 미국 MFN 관세율이 불명확한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 1. 미대상 품목 고수입 양국경쟁 품목에 대한 HS2 단위별 분포

(단위: 개)



주: 가로축은 HS 2단위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2. 분석대상별 미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입규모

(단위: 억 달러, %)

구분		대일본 수입액		대한국 수입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일 상품협정 품목	분석대상 품목	72.1	5.2	23.6	3.1
	83개 경쟁심화 품목	26.1	1.9	13.6	1.8
	83개 내 84류 품목	12.1	0.9	7.4	1.0
여타 품목	분석대상 품목	730.4	52.1	384.3	51.2
	659개 경쟁심화 품목	592.3	42.2	306.6	40.8
	659개 내 87류 품목	415.6	29.6	183.5	24.4
전 품목		1,403.2	100.0	750.9	100.0

주: 수입액은 2017~19년 평균액이며, 비중은 전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